

# 중국 고대 문헌자료의 고조선 기사에 대한 이해

김정열\*

- I. 머리말
- II. 중국 고대문헌의 고조선 관련 기사 검토
- III. 고조선 관련 기록의 이해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삼국시대 이전 한국 상고사의 경우 독자적인 문헌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주로 중국의 문헌자료가 연구에 활용된다. 그런데 중국의 고대 문헌자료는 대개의 경우 복잡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쳐 현재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한국의 상고사를 복원하려 할 경우, 사용되는 문헌자료의 성립 경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고조선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중국 고대의 문헌기록에 보이는 어떤 기록이라도 소중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중국 고대의 문헌자료는 본디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그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잠시 유보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시·공간적 거리를 둔 정보들이 하나의 평면에 혼재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자료가 표방하는 연대에 따라서

---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 내용을 일정한 시공의 계열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지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고조선에 관련된 중국의 문헌기록은 대개 한대(漢代)에 들어 현재의 형태에 가깝게 정리, 편집되었다. 따라서 그 기록들에는 한대인(漢代人)들의 사유방식과 생활환경, 그리고 자연관, 지리관 및 세계관이 녹아 있으며, 따라서 한대의 사실이 마치 과거의 사실인 것처럼 서술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각각의 문헌자료가 표방하는 시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고조선사를 구축한다면 그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사료의 공백을 메우거나 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고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문헌자료에 내재한 불합리성을 은폐하거나 문헌기록 전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은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 산견되는 고조선 관련 문헌기록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핵심어: 고조선, 문헌기록, 사료비판, 『관자』, 『전국책』, 『위략』

## I. 머리말

역사학은 문헌자료, 즉 문자로 매개된 정보로부터 과거를 복원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전 한국 상고사의 경우 독자적인 문헌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주로 중국의 문헌자료가 연구에 활용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고대 문헌자료는 대개의 경우 복잡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쳐 현재에 전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문헌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상고사를 복원하려 할 경우, 사용되는 문헌자료의 성립 경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 수용할 것인가 때

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고조선사의 연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고조선에 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전하는 자료는 『사기(史記)』 조선열전(朝鮮列傳)과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이다. 그런데 이 두 문헌자료는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및 위만조선의 멸망에 대한 기사로 그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것도 그렇게 풍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만조선 이전의 단계가 되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 관련 기록은 『관자(管子)』, 『전국책(戰國策)』, 『산해경(山海經)』, 『위략(魏略)』 등에 보이는 지극히 영성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초기 고조선사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들 기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자료의 절대량이 부족한 만큼 각각의 문헌자료가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 때문에 이들 기록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문헌자료 각각의 내용은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게 평가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고조선사를 복원할 때 오히려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 산견되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 인지를 탐구하는 일이 고조선사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은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 산견되는 고조선 관련 기록의 가치를 검토하는 데 있다. 그것은 주로 사료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는 이미 고조선사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sup>1)</sup> 중국 고대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1) 관련 연구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근년의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박경철,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

입장에서 이들의 선부(善否)를 논단하는 일은 매우 선부른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대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고조선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데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혹여 고조선사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이 글을 기초하게 된 이유이다.

## II. 중국 고대문헌의 고조선 관련 기사 검토

### 1. 고조선의 출현: 『관자』

고조선 관련 중국 고대 문헌자료 중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관자』 경중갑편(輕重甲篇)과 규탁편(揆度篇)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조선의 특산물, 그리고 춘추열국의 하나인 제(齊)와 고조선의 관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 ①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사방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고 그들의 적대적인 정책이 천하에 영향을 주어 나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관자가 대답하기를 오(吳)와 월(越)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는데, 진주와 상아를 화폐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발(發)과 조선(朝鮮)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는데, 호랑이 가죽과 털옷을 화폐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그것들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8천리 떨어져 있는 발과 조선이 우리에게 조공

---

『先史와 古代』 29, 2008; 서영수, 『史記』 古朝鮮 史料의 構成 분석과 新 解釋(1)』, 『단군학연구』 18, 2008;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서울: 景仁文化社, 2013.

을 바칠 것입니다.<sup>2)</sup>

② 환공이 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나는 이 세상에 일곱 군데의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첫 번째 보물은 음산(陰山)에 있는 보석이요, 두 번째 보물은 연(燕)의 자산(紫山)에 있는 은이요, 세 번째 보물은 밭, 조선의 반점이 박힌 짐승 가죽입니다.<sup>3)</sup>

①, ②가 고조선 연구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선진시대 문헌자료 가운데 고조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최초의 자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늦어도 관중(전 716?~전 645?)이 생존한 기원전 7세기 이전부터 조선이란 국호가 성립되었다거나,<sup>4)</sup> 고대 중국인들은 이미 전 7세기에는 조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역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5)</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자』는 관중에게 가탁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관중이 생존한 시기까지 소급할 수 없다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sup>6)</sup>

『관자』는 춘추시대 제 환공 때의 하경(下卿)인 관중의 이름을 딴 장편의 정론서(政論書)로서 현재 76편이 전해진다. 일반적인 견해는 『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찬

2) 『管子』 권80, 輕重甲.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游于天下, 而傷寡人, 寡人之爲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請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絨服以爲幣乎. … 然後, 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3) 『管子』 권78, 揆度.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策,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礪磬, 一策也, 燕之紫山白金, 一策也, 發朝鮮之文皮, 一策也.”

4)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1988.

5) 宋鎬畵,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울: 서경문화사, 2014.

6)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술되었으며, 그 시작은 제 선왕(宣王, 전319~전301) 때 제도(齊都) 임치(臨淄)에서 번영한 직하학관의 일부 학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전하는 『관자』의 체례는 유향이 전 26년에 편집한 것으로 편집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①, ②가 포함된 제68편 이하의 ‘경중제편(輕重諸篇)’도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 ‘경중제편’은 화폐를 이용하여 식량과 기타 상품의 공급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제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후대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sup>7)</sup>

이처럼 『관자』의 성립 시점이 전 7세기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전 7세기 고조선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관자』의 해당 기록이 전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어떤 전승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춘추시대의 사실로 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sup>8)</sup> 이 기록을 통해 고조선과 제 사이의 문피(文皮) 교역이 실제 행해졌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자도 보인다.<sup>9)</sup> 그러나 『관자』가 이용한 자료가 이전부터 내려온 전승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관자』의 내용이 문면 그대로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의 내용은 전 7세기보다 오히려 전한 무렵 중국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sup>10)</sup>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 고조선의 성장과 그 위치: 『전국책』과 『산해경』

『전국책』은 전 4세기 말경 고조선의 위치와 활동에 관련된 더욱 구

7) 魯惟一 주편, 李學勤 등 역, 『中國古代古典導讀』,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7.

8) 宋錦畧, 앞의 논문, 14쪽.

9) 박준형, 앞의 책, 104-114쪽.

10) 吳江原, 『管子』 「輕重」篇과 「輕重」篇의 古朝鮮 記事, 『한국고대사탐구』 20, 2015.

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록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국책』은 전국시대의 사실을 전하는 일종의 역사서인데, 권29 연책(燕策) 일(一)에는 소진(蘇秦)이 연(燕) 문후(文侯, 전361-333)에게 합중(合縱)을 권하면서 연 주변의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③ 소진이 장차 합중을 성사시킬 생각으로 북쪽으로 가서 연 문후에게 유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연의 동쪽에는 조선(朝鮮)과 요동(遼東)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운중(雲中)과 구원(九原)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呼沱)와 역수(易水)가 있습니다. 영토는 사방 2000여 리이며 군사는 수십 만, 전차는 700승, 기마는 6000필이요, 군량은 십 년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sup>11)</sup>

이 사건은 『사기』 연소공세가(燕召公世家)와 소진열전(蘇秦列傳)에도 기록되어 있으며,<sup>12)</sup> 특히 전자에서는 문후 28년의 일로 그 시점을 특정하여 전한다. 이 문후 28년은 전 334년에 해당하므로 ③은 전 4세

11) 『戰國策』 권29, 燕策一. “蘇秦將爲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疋, 粟支十年.”

12) 『史記』 권34, 燕召公世家. “文公十九年, 齊威王卒. 二十八年, 蘇秦始來見, 說文公. 文公予車馬金帛以至趙, 趙肅侯用之. 因約六國, 爲從長.”; 권69, 『蘇秦列傳』. “去遊燕, 歲餘而後得見.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 南有碣石鴈門之饒, 北有棗栗之利, 民雖不佃作而足於棗栗矣. 此所謂天府者也. 夫安樂無事, 不見覆軍殺將, 無過燕者. 大王知其所以然乎. 夫燕之所以不犯寇被甲兵者, 以趙之爲蔽其南也. 秦趙五戰, 秦再勝而趙三勝. 秦趙相斃, 而王以全燕制其後, 此燕之所以不犯寇也. 且夫秦之攻燕也, 踰雲中九原, 過代上谷, 彌地數千里, 雖得燕城, 秦計固不能守也. 秦之不能害燕亦明矣. 今趙之攻燕也, 發號出令, 不至十日而數十萬之軍軍於東垣矣. 渡呼沱, 涉易水, 不至四五日而距國都矣. 故曰秦之攻燕也, 戰於千里之外, 趙之攻燕也, 戰於百里之內. 夫不憂百里之患而重千里之外, 計無過於此者. 是故願大王與趙從親, 天下爲一, 則燕國必無患矣. 文侯曰, 子言則可, 然吾國小, 西迫強趙, 南近齊, 齊趙疆國也. 子必欲合從以安燕, 寡人請以國從.”

기 말경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은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조선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③의 연대에 조선은 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연의 국제정세를 논할 때 거론될 만큼 성장해 있었다.<sup>13)</sup> 둘째, ③의 “연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는 고조선의 위치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sup>14)</sup> 후자는 다시 요동과 조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는데, 혹자는 기록의 순서에 따라 조선이 요동보다 연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고 하고, 혹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전국책』은 전한 말 유향이 편집한 전국고사(戰國故事)의 편집본이다. 그런데 『전국책』은 원래 전국시대 사료로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전국책』이 전한 말 편집되는 시점에서 자료로 삼은 것은 『전국총횡가서(戰國縱橫家書)』에서 그 실례가 확인되는, 전한 초기까지 전적으로 편집되어 있던篇章(篇章)과 그밖에 전국 각국에 보관되어 온 서신, 주언, 대화 형식의 각종 자료이다.<sup>16)</sup> 뿐만 아니라 『전국책』에는 전국고사 이외에도 설화 형식을 가진 다양한 성격의 자료도 혼입되어 있다. 이처럼 시대가 다르고 성격도 다른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국책』에는 역사적 배경이나 인명 등이 잘못 부가된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였다.<sup>17)</sup>

특히 소진과 장의(張儀)의 고사에는 그 연대에 모순이 있다는 점이

13) 盧泰敦, 앞의 논문, 32~33쪽.

14) 徐榮洙, 앞의 논문, 1988, 22~23쪽.

15) 宋鎬錫,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2015, 211~212쪽.

16) 徐波·姚桂榮, 「《戰國策》之名及其成書辨」, 『吉林師範學院學報』 1996[4], 1996.

17) 藤田勝久, 『史記戰國史料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藤田勝久, 1997, 189~224쪽, 432-434쪽.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소진 사적의 복원에 의하면, 그는 ③에서 보듯이 문공(文公) 때의 인물이 아니고 소공(昭公) 때의 인물이다.<sup>18)</sup> 뿐만 아니라 ③의 기록은 소진이 연 문후에게 합종을 주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이 전국고사 역시 후대의 위작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소진의 유세 배경이 되는 상황, 즉 육국(六國)이 합종하여 진(秦)을 견제할 필요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글 가운데 등장하는 운중, 구원 등의 군명이 이 시점에서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sup>19)</sup> 근래에는 ③에서 보는 것처럼 요동과 조선이 문헌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한대 이후부터의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20)</sup>

한편, 『전국책』의 기록 외에 『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과 해내경(海內經)에서 언급된 아래와 같은 기록 역시, 간략하긴 하지만, 전국시대 고조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료로 비중 있게 취급되어 왔다.

- ④ 조선은 열양(列陽)의 동쪽에 있다.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에 속한다.<sup>21)</sup>
- 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조선과 천독(天毒)이다.<sup>22)</sup>

④, ⑤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지만 그 내용에는 고조선의 위치가 상대

18) 藤田勝久, 『史記』蘇秦·張儀列傳の史料的考察—戰國中期の合縱と連橫—, 『愛媛大學教養部紀要』 25, 1992.

19) 楊寬, 『戰國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구본희, 「戰國~秦漢代 遼東郡과 古朝鮮 西界의 변화」,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6-28쪽.

20) 吉本道雅, 「東胡考」, 『史林』 91-2, 2008.

21) 『山海經』 권12, 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22) 『山海經』 권 18,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天毒.”

적인 좌표로 설명되어 있다. ④에 보이는 ‘열양의 동쪽’ 또는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라는 기록이나, ⑤에 보이는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란 기록이 그것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매우 막연하므로 이 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위치를 비정하려는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묘사된 기록을 근거로 해서 혹자는 고조선이 요서(遼西)의 난하(灑河) 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sup>23)</sup> 혹자는 한반도 서북지방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sup>24)</sup>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④, ⑤의 기록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고조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산해경』이 전국시대에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판단하에 ④, ⑤가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사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sup>25)</sup>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산해경』의 후대성을 고려하여 그것의 사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입장도 있다.<sup>26)</sup>

『산해경』은 후한 초 유희(劉歆, 전53~23)이 칙명을 받아 그때까지 32편으로 전해져온 죽간본 32편을 정리하여 18편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사기』 대완열전(大宛列傳)이므로<sup>27)</sup> 늦어도 이때에는 이미 『산해경』 또는 원시적인 형태의 『산해경』이 성서(成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설에 의하면 『산해경』이 전설적 군주인 우(禹)와 그의 조력자인 익(益)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나

23) 리지린, 『고조선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72~83쪽.

24) 宋鎬錫, 앞의 논문, 1999, 18~19쪽.

25) 宋鎬錫, 위의 논문, 18쪽.

26) 盧泰敦, 앞의 논문, 31쪽.

27) 『史記』 권123, 大宛列傳. “太史公曰, 禹本紀言, 河出崑崙, 崑崙其高二千五百餘里, 日月所相避隱爲光明也. 其上有醴泉瑤池. 今自張騫使大夏之後也, 窮河源, 惡睹本紀所謂崑崙者乎. 故言九州山川, 尚書近之矣. 至禹本紀山海經有怪物, 餘不敢言之也.”

믿을 수 없다. 이후 춘추전국설, 진한설 등도 제기되었으나, 근래에는 대개 『산해경』의 내용이 복잡한 층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600~800년에 걸쳐 서로 다른 작가가 기록한 내용을 편집하여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sup>28)</sup>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해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분은 오장산경(五藏山經)으로 전국시대의 저작이며, 기타 부분은 진한 이후의 저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산해경』 안의 각 부분마다 편찬된 기록이 차이가 나므로, 이 책에 보이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 또한 언제 것인지 단정키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진한 이후의 것이라 보는 것이 무난하다.<sup>29)</sup> 특히 ⑤의 기록에 보이는 천독(天毒)을 현도(玄菟)의 오기라 간주하고 「해내경(海內經)」의 지리 인식이 전한 때의 것이라 이해한 연구성과<sup>30)</sup>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선 관련 기록 역시 한대 이후의 지리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연의 공격과 고조선의 퇴축: 『위략(魏略)』과 『염철론(鹽鐵論)』

『사기』 조선열전은 전국시대 연이 그 전성기에 들어 진번(眞番)과 고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켰다는 정보를 전한다.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의 배송지(裴松之) 주에 인용된 『위략』에는 그 사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

28) 袁珂, 『山海經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29) 魯惟一 주편, 앞의 책, 380~391쪽.

30) 吳江原, 『『山海經』 「海內經」 「朝鮮天毒」 기사의 맥락과 의미』, 『한국사연구』 169, 2015.

급되어 있다.

⑥ 옛날 기자의 후손 조선후가 있었는데, 주(周)가 쇠퇴하여 연(燕)이 스스로를 높여 왕(王)이라 하면서 동쪽으로 땅을 공략하려 하는 것을 보고 조선후도 왕이라 자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맞아 공격함으로써 주실(周室)을 높이려 하였다. 그 대부(大夫) 예(禮)가 말렸으므로 중지하였다. 예로 하여금 서쪽으로 가서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도 그 만두어 공격하지 않았다. 이후에 자손들이 점차 교만하고 사나워졌으므로 연은 이에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이천여리의 땅을 취하고 만번한(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결국 쇠약해졌다.<sup>31)</sup>

⑥의 기록에 따르면, 연이 장수 진개를 보내어 고조선을 공격한 시점은 “연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라” 칭한 이후이다. 연이 ‘칭왕’한 것은 역왕(易王, 전332~321) 때의 일이라 전하므로,<sup>32)</sup> 조선후가 왕을 칭한 것은 대개 이 무렵이라 생각되며, 고조선 공격은 다시 그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진개의 고조선 침략은 『염철론』에도 관련 기록이 보인다.

⑦ 대부가 말했다. “제의 환공은 연을 넘어 산융(山戎)을 정벌하였으며 고죽(孤竹)을 깨뜨리고 영지(令支)를 멸망시켰습니다. ... 연은 동호(東胡)를 습격하여 패주시키고 천리의 땅을 넓혔으며 요동을 건너 조선을 쳤습니다. ... 무릇 연이나 조(趙)같은 작은 나라들도 오랑캐의

31)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에 인용된 裴松之 注.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32) 『史記』 권34, 燕召公世家. “易王初立, 齊宣王因燕喪伐我, 取十城. 蘇秦說齊, 使復歸燕十城. 十年, 燕君爲王.”

노략질을 물리치고 땅을 넓혔는데 지금 한(漢)은 나라의 크기와 사민의 힘이 제 환공의 무리나 연과 조의 군사와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흉노가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은 까닭은 여러 신하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상하가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sup>33)</sup>

⑦에 의하면 진개는 고조선을 침공하기 이전 동호를 공략하였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동호 공략과 조선 침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닌지를 단언하기 어렵다. 위에 인용한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 역시 매우 간단하여 사건의 전말을 알기 어렵다. 다만 『사기』 흉노열전에는 ⑦에서 조선을 침공하기 이전의 사실이라 전하는 연의 동호 정벌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⑧ 그 후에 연에는 현장(賢將) 진개가 있어 호(胡)에 인질로 갔는데, 호가 그를 지극히 신임했다. (이를 이용하여) 돌아와서 동호를 습격하여 격파하니, 동호는 1000여 리를 물러났다. 형가(荊軻)와 함께 진왕(秦王)을 찔러 죽이려 한 진무양(秦舞陽)이 진개의 손자이다. 연은 또한 조양(朝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을 쌓았으며, 상곡(上谷),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군(遼東郡)을 설치하여 호를 방어했다. 이때에 판모와 의대를 한 전국의 일곱 나라 가운데 세 나라가 흉노(匈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sup>34)</sup>

⑥~⑧의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시대의 연은 그 전성기에 접어들어

33) 『鹽鐵論』 권8, 伐功. “大夫曰, 齊桓公越燕伐山戎, 破孤竹, 殘令支. …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 夫以小國燕趙, 尚猶卻寇虜以廣地, 今以漢國之大, 士民之力, 非特齊桓之衆燕趙之師也. 然匈奴久未服者, 群臣不并力, 上下未諧故也.”

34) 『史記』 권110, 匈奴列傳.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 開之孫也.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當是之時, 冠帶戰國七, 而三國邊於匈奴.”

동호, 고조선과 갈등관계에 돌입하였으며, 그 결과 진개를 보내어 이들을 패퇴시키고 크게 영토를 확장하였다. 먼저 동호를 공략한 이후에 고조선을 정벌하였는데, 그 결과 동호는 천리의 땅을, 고조선은 이천 리의 영토를 상실하였다. 연은 동호가 물러간 지역에 5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위에 인용한 몇몇 자료는 고조선의 국가 발전과 그 영역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먼저 고조선은 연의 역왕이 왕을 칭하였을 때 역시 ‘왕’을 칭하였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상정되지만 대개 전 320년경의 일로 생각된다. 이 무렵 고조선이 칭왕한 것은 고조선이 명실상부 고대국가 단계로 성장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5)</sup> 이 기록에는 연에 대한 공격을 만류한 ‘대부’ 예도 보이는데, 이 기록은 고조선에 중국식 관료제가 어느 정도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36)</sup>

실제로 연이 동호와 고조선을 공격한 시점은 전 282~280년 사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헌자료에는 그 시점을 특정하는 기록이 없지만, 여기에는 연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소왕(昭王) 때이며, 연이 동호와 조선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연이 제를 격파한 전 284년 이후부터 소왕이 사망한 279년 사이가 아니라면 달리 찾을 수 없다는 정황적 판단이 근거가 된다.<sup>37)</sup> 이런 판단이 타당하다면, 전 3세기 초 고조선은 연의 대대적 침공하에 서방의 영토 이천여 리를 상실하고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35) 박대재, 「古朝鮮의 ‘王’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2005.

36) 박준형, 앞의 책, 163~165쪽.

37) 배진영, 『고대 北京과 燕文化 -燕文化의 형성과 진개를 중심으로-』, 과주: 한국 학술정보, 2009, 321~326쪽; 서영수, 앞의 논문, 2008, 74~76쪽; 박준형, 앞의 책, 169~181쪽.

특히 ⑥의 기사에서는 ‘서방 이천여 리’ 상실 기록과 ⑦의 “요동을 건너 조선을 쳤습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각별하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의 내용에 따라 고조선 영토의 대체적인 경계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천여 리라는 숫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sup>38)</sup> 천리의 오기라고 보는 견해<sup>39)</sup> 또는 매우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대략의 수치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sup>40)</sup>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요동을 건너 조선을 쳤습니다.”를 요동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sup>41)</sup> ‘요동을 건너’는 ‘요하를 건너’의 오기라고 주장하거나,<sup>42)</sup> 아예 해당 문구를 “요하를 건너 동진하여 조선을 쳤습니다.”로 구독을 달리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된 바 있다.<sup>43)</sup>

⑥~⑧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그 기록이 고조선사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사료의 내용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사료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⑥의 기사는 “옛날 기자의 후손 조선후가 있었다.”는 구절로 시작된다. 여기에 보이는 기자조선설은 『상서대전(尙書大傳)』<sup>44)</sup>이나 『사기』 송세가(宋世家)<sup>45)</sup> 등 전한시대에 돌연 출현했지만, 기자가 조

38) 리지린, 앞의 책, 22쪽.

39) 盧泰敦, 앞의 논문, 36~49쪽;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제29집, 1999, 18~19쪽.

40) 宋鎬晟, 앞의 논문, 147~148쪽.

41)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42~44쪽.

42) 박준형, 앞의 책, 159쪽 및 이 책의 각주 117에 인용된 諸家の 논문 참조.

43) 徐榮洙, 앞의 논문, 1999, 18쪽.

44) 『尙書大傳』 권2, 洪範五行傳. “武王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선에 봉건된 경위에 대한 양 기록의 세부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자조선설이 사마천의 시대에 출현하였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조선후도 왕이라 자칭하고”라 한 것도 검토할만한 여지가 남는다. 이를테면 『삼국지』 동이전은 조선후 준(準)이 처음으로 칭왕하였다고 하므로<sup>46)</sup> ⑥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당시 조선이 역왕 이전의 문후(전361~331) 때부터 연 주변의 주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③의 기록과 연계되어 사실로 간주되어 왔다.<sup>47)</sup>

그러나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③의 신뢰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략』의 가치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위(魏) 명제(明帝) 때 어환(魚豢)이 태화(太和) 연간(227~232)과 진 태강(太康) 연간(280~289) 사이에 편찬한 기전체 사서로서 대개 250~260년 사이에 성서되었다고 생각된다. 『위략』에는 『사기』나 『한서』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실려 있으므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에 근거한 논설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기자조선설이 한대에 들어 비로소 성립되었다는 견해를 수용한다면,<sup>48)</sup> ⑥의 해당 기사는 한대 이후의 정보에 입각하여 기록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염철론』은 전한 소제(昭帝) 시원 6년(전 81)에 거행된 염철 회의(鹽鐵會議)의 기록을 바탕으로 환관(桓寬)이 정리하여 편집한 책

45) 『史記』 권38, 宋微子世家.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46)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47) 박준형, 앞의 책, 161~162쪽.

48) 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이다. 『염철론』은 『한서』 예문지에 현재의 체례로 저록되어 있으므로 후한대에 널리 통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정확한 편집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개 宣帝의 재위기간인 전 74~전 49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견해가 많다. ⑦에 보이는 기록은 흉노가 복종하지 않는 책임의 귀속을 놓고 대부(大夫)와 문학(文學)이 논변하는 과정에서 대부가 한 발언이다. 그 내용은 영토 확충의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확충 규모의 정확성 또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한대에 존재한 막연한 인식을 전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⑥, ⑦의 사실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⑧의 기록 때문이다. 여기에는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⑦에 고조선 정벌과 일련의 사건으로 기록된 동호 정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⑦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호 정벌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사료인 『사기』라는 문헌에 실려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고조선 정벌 역시 믿을만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⑧을 검토한 요시모토 미치마사(吉本道雅)는 이 기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⑦의 기록에는 연이 동호를 물리친 후 5군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정작 『사기』 연소공세가에는 5군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 연 소왕 때의 변군 설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요시모토는 『사기』에 기록된 진(秦), 조(趙)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비교하면서 전국시대 북방제국(北方諸國)의 변군 설치 기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들어 북방 이민족 격퇴, 장성 축조, 변군 설치라는 일종의 도식화된 서사구조로 일괄 정리된 것이었음을 간파했다.<sup>49)</sup>

뿐만 아니라 그는 ‘호(胡)’라 단칭하던지 또는 ‘동호(東胡)’ ‘호북(胡

服)’처럼 ‘호’를 사용한 어휘는 한대에 성서된 문헌에 비로소 출현하는 것에 주목했다. 진개의 동호 격퇴를 전하는 ⑧ 흉노열전의 기록에는 ‘호’와 ‘동호’가 동일한 것으로 언급되고, 연의 동호 격퇴와 5군 설치 기사에 이어 진, 조, 연 등 전국시대의 세 나라가 ‘흉노’와 접경하게 되었다는 구절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호, 동호, 흉노가 서로 호용되며, 진, 조, 연 등의 북방이민족 격퇴와 변군 설치, 그리고 흉노와의 대치로 이어지는 ⑧의 기술의 패턴은, 요시모토에 의하면, 흉노의 출현을 설명할 때의 무의식적인 전제가 된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흉노를 전제화하는 이런 기록은 한대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⑥~⑧에 보이는 진개설화 그 자체의 내용 모두가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Ⅲ. 고조선 관련 기록의 이해

#### 1. 물질자료와 문헌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고대의 고조선 관련 문헌자료는 그 신뢰성에, 특히 문헌이 표방하는 연대와 그 내용의 실제 연대 사이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문헌임을 표방하는 『관자』, 『전국책』, 『산해경』 등에는 한대의 정보가 실려 있거나 혹은 혼입되어 있으며, 전국시대의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 『위략』이나 『염철론』의 기록에도 한대인들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49) 吉本道雅, 「東胡考」, 『史林』 91-2, 2008.

의 고조선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그 주요한 이유의 한편에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간주되는 유존(유물과 유적)의 양상과 서로 호응한다고 생각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요녕(遼寧) 지역의 토착 물질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로 이해된다.<sup>50)</sup> 이 비파형동검문화는 지역에 따라 묘장 구조와 유물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몇 개의 하위 지역문화로 다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전 9~4세기경 요서 및 요중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십이대영자문화(十二臺營子文化)가 바로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된 토착집단이 영위한 문화라는 견해가 국내학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sup>51)</sup>

십이대영자문화는 다시 전 9세기~전 5세기경의 십이대영자유형과 전 4세기대의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 이중구연점토대토기를 표지유물로 하며 요서지역의 대릉하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 후자는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 이중구연점토대발과 흑도장경호 등을 표지 유물로 하며, 그 분포범위는 의무려산(醫巫閭山) 이동에서 천산산맥(千山山脈) 이서까지 걸쳐 있다.<sup>52)</sup> 십이대영자문화는 십이대영자유형에서 정가와자유형으로 변화하는 전 4세기경에 그 분포지역이 크게 팽창하며, 이 가운데서도 정가와자 M6512호

50)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1].

51) 이청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의미」, 『인문학연구』 28, 2015.

52) 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의 성장 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제38집, 2017.

와 같은 탁월한 규모의 묘장을 배출하는 심양(瀋陽) 인근 정가와자 유적이 그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인식된다.<sup>53)</sup>

근년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통해 획득된 이상과 같은 지견(知見)은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 보이는 고조선 관련 기록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를테면 『관자』에 보이는 제와 고조선의 관련 기사(①, ②)는 전 7세기경을 전후하여 발달한 십이대영자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정되고, 전 4세기경에 번영한 정가와자유형은 『전국책』(③)과 『위략』(⑥) 등에서 확인되는 고조선의 극적인 성장과 연결된다.<sup>54)</sup> 이처럼 고고학적 지견과 문헌자료가 상보적인 작용을 하면서, 중국 고대 문헌자료가 전하는 고조선의 발전 양상 역시 ‘입증된’ 사실로 인정되는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조선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물질문화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물질문화의 양상과 문헌자료의 내용을 연계하는 데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55)</sup>

요령 지역의 토착문화에서 고조선의 주체를 찾기 위해 『위략』의 내용을 기자조선설, 조선후칭왕설 등을 배제한 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요동을 건너 조선을 쳤다.”는 『염철론』의 기록과 정가와자 유적을 연계하기 위해 『염철론』의 문면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는 것은 문헌자료와 물질자료의 상호보완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고고학적 자료 상황에

53) 이청규, 「고조선과 요하문명」,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2011; 2016, 박준형, 앞의 책, 142~157쪽; 이후식, 위의 논문, 14~26쪽.

54) 이청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송호정, 푸른역사, 2003)에 대한 비평」, 『역사와 현실』 48, 2003; 박준형, 위의 책, 22~169쪽.

55) 김정열, 「고고문화와 민족-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2018, 62~73쪽.

맞추기 위해 문헌기록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전자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문헌자료는 우선 문헌자료 그 자체의 내용대로 수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 문헌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자료를 정당하게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 2. 고대 문헌자료의 성격과 고조선 기사의 신뢰성

앞서 중국 고대 문헌의 고조선 관련 기록에는 그것이 표방하는 시점의 정보가 아니라 그보다 늦은 시점, 특히 한대의 정보와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담겨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고조선사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시계열화 하려는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문헌자료 상황은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조선 관련 문헌자료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혼란한 현상은 중국 고대 문헌기록의 성립 과정에서 보면 특별히 이례적인 것만도 아니다.

중국 선진시대의 전적은 주로 간독(簡牘)과 백서(帛書)의 형태로 전승되었지만, 그 절대량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적은 구전이나 암송, 필사 등의 형태로 전수되었다.<sup>56)</sup> 금본 『상서』가 전한 초 복생(伏生)이 암송한 『상서』를 바탕으로 정본(定本)된 것은 그중에서도 유명한 사례이다.<sup>57)</sup> 특히 진대에 들어서는

56) 김경호, 「秦漢時期 書籍의 流通과 帝國秩序」, 『中國古中世史研究』 32, 2014.

57) 이승률,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I』, 서울: 예문서원, 2013, 64~67쪽.

사상통제를 위해 시, 서 또는 제자서의 사장(私藏)을 금지하고 분서(焚書)하였으며, 이후 항우가 진도 함양을 불태우는 등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전래 전적의 상당수는 소실되거나 유산되었다. 이후 한대에 들어서 궁중이나 민가에 소장된 각종 전적이 다시 수집되고 정리된 것은 『한서』 예문지가 전하는 바와 같다.<sup>58)</sup>

중국 고대의 각종 전적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서 과정에서 크게 변형된 양상은 1970년대 이후 전국·진한시대 전적의 사본이 다량으로 출토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sup>59)</sup> 이들 신출 전적이 알려주는 정보는, 선진의 전적이 단편(單篇) 혹은 부분 편장(篇章)의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동일한 편명이나 유사 내용을 가진 전적이라도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하는 복수의 것이 병존하였다는 점, 아울러 그것이 한대에 들어 현전하는 여러 문헌으로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변형은 문헌 내의 각종 층위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때로는 그 변형이 단어나 문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헌 전편에 걸쳐 이루어져서 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도 있다.<sup>60)</sup>

따라서 현전하는 중국 고대의 각종 전적은 대부분 한대인이 전수하고 정리한 것이며 새로 편집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모두 한대의 것이다. 고대 문헌의 대부분은 한대 학자들의 심사와 정리를 거쳤으며, 따라서 한대인이 보유한 정보나 사상에 의해, 원형의 것에서

58) 熊鐵基, 「漢代學術的歷史地位」,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2[5], 2003.

59) 이승률, 앞의 책, 19~34쪽; 裘錫圭, 「出土文獻與古典學重建」, 『出土文獻』 4, 2013.

60) 夏含夷 著, 周博群 等 譯, 『重寫中國古代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210~217쪽.

많은 적든 불가피하게 변형되었다. 그 가운데는 심지어 한유(漢儒)가 새로 창작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sup>61)</sup>

이와 같은 중국 고대 문헌의 성립 과정에서 심원한 영향을 끼친 것은 유향(劉向, 전77~전6), 유흠(劉歆, 전53~전23) 부자이다. 성제(成帝)의 칙명으로 비서(秘書)의 교열을 담당하게 된 유향과 부친의 사업을 계승한 유흠은 전래된 방대한 양의 전적을 교열·편집하여 각종 문헌을 현전하는 형태로 정착시켰다. 이들의 교서(校書)는 전래된 전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후 전해지게 된 문헌과 그것을 구성하는 편장,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문자 등은 모두 그들에 의해 심정(審定)된 것이다. 현재의 관심사인 고조선 관련 문헌으로 그 범위를 좁혀 보아도 『관자』, 『산해경』과 『전국책』이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 그들이 이들 문헌의 정착 과정에서 끼친 영향의 정도는 유향이 『전국책』을 편집한 과정을 설명한 서록(敍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감한 전국책(戰國策)은 중서(中書)에 남아있는 죽간이 착란(錯亂)되어 있고 나라별로 된 8편이 있었으나 분량이 적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신(臣)(유)향(向)은 나라별로 된 것을 근거로 하여 대략 시대 순으로 차례를 정하되 차례에 따라 나눌 수 없는 것은 서로 보충하고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여 33편을 얻었습니다. 글자의 오탈(誤脫)과 반자(半字)가 많아 조(趙)는 초(肖)로 제(齊)는 립(立)으로 된 것과 같은 글자가 많았습니다. 중서(中書)에 보관된 전적의 본래 이름은 국책(國策), 국사(國事), 단장(短長), 사어(事語), 장서(長書), 수서(修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전국의 유사(遊士)들이 그들을 임용한 나라를 위해 책략을 꾸민 내용이니 전국책이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sup>62)</sup>

61) 熊鐵基, 앞의 논문, 54~58쪽.

62) 『戰國策』, 敍錄. “所校中戰國策書, 中書餘卷, 錯亂相糅莠, 又有國別者八篇, 少不

이에 의하면 『전국책』의 편집 과정은 단순하게 전래 전적을 정리하고 편집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각종 전적은 그 문자에서 내용, 나아가서는 목차와 서명까지도 새롭게 정해졌다. 교서의 과정에서 그들이 견지했을 엄정성을 낙관적으로 상정한다 해도,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번잡한 전적이 하나의 문헌으로 정착될 때 겪게 되었을 혼란과 착오는, 『전국총형가서』와 『전국책』 사이에 보이는 간극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sup>63)</sup> 이처럼 중국 고대의 문헌자료가 한대에 들어 새롭게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자료가 표방하는 내용의 시·공간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자명하게 될 것이다.

#### IV. 맺음말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그에 관련된 짙막한 기록이라도 소중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중국 고대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기록에 충실히 따르면서 고조선사의 윤곽을 그려보려는 시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중국 고대의 문헌자료는 본디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그 내용의 신뢰성은 차치하고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시·공간적 거리를 둔

足。臣向因國別者，略以時次之，分別不以序者以相補，除復重，得三十三篇。本字多誤脫爲半字，以趙爲爲肖，以齊爲爲立，如此字者多。中書本号號 或曰國策，或曰國事，或曰短長，或曰事語，或曰長書，或曰修書。臣向以爲，戰國時遊士輔所用之國爲之策謀，宜爲戰國策。”

63) 張兵, 「《戰國縱橫家書》 文獻史料價值探析」, 『理論學刊』 2017[5], 2017.



정보들이 하나의 평면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자료가 표방하는 연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정한 시공이 계열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지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고대의 문헌자료를 이용할 때는 그에 대한 사료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헌의 전체나 그 일부가 가탁되거나 위작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심지어는 신뢰도가 높은 전적 중에서도 후대에 가필되거나 윤색되고 때로는 오기와 착간 등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변화한 것도 있다. 따라서 중국 고대의 문헌자료, 특히 선진시대의 문헌자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그 내력은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조선 관련 문헌기록은 대개 한대에 들어 현재의 형태에 가깝게 정리되었다. 거기에는 한대인의 사유방식과 생활환경, 그리고 자연관, 지리관 및 세계관이 녹아 있다. 따라서 각각의 문헌자료가 표방하는 시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고조선사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고고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과 문헌자료를 연계하여, 문헌자료에 내재한 불합리성을 은폐하거나 문헌기록 전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도 문헌자료의 정확하고 정당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고대 문헌자료가 비교적 오랜 시간 축 위에서 점차 형성되어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지층이 형성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층도 다양한 자연조건이 작용하여 연대 특유의 유물을 그 지층 가운데 남겨놓고 퇴적되어 간다. 『사기』는 의심할 나위 없이 선진사 연구의

필수불가결한 자료이지만 심지어 여기에 기록된 것 역시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성규의 말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영성하여 그 실체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지나친 비약과 억단을 삼가면서 ‘다문필의(多聞闕疑)’의 원칙을 지키면 만족스럽지도 않고 공백도 많지만 ‘억단과 상상’에 의한 가공의 역사’는 피할 수 있다.”<sup>64)</sup>

## ▣ 참고문헌

### <단행본>

- 魯惟一 주편, 李學勤 등 역, 『中國古代古典導讀』,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7.  
藤田勝久, 『史記戰國史料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울: 서경문화사, 2014.  
배진영, 『고대 北京과 燕文化 - 燕文化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 과주: 한국 학술정보, 2009.  
楊寬, 『戰國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袁珂, 『山海經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이승률,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I』, 서울: 예문서원, 2013.  
夏含夷 저, 周博群 등 역, 『重寫中國古代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논문>

- 구본희, 「戰國~秦漢代 遼東郡과 古朝鮮 西界의 변화」,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裘錫圭, 「出土文獻與古典學重建」, 『出土文獻』 4, 2013.

---

64) 이성규, 「중국사학계에서 본 고조선」, 『한국사시민강좌』 49, 서울: 일조각, 67쪽.

-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1982.
-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1], 1983.
- 吉本道雅, 「史記匈奴列傳疏證: 上古から冒頓單于まで」,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45, 2006.
- 吉本道雅, 「東胡考」, 『史林』 91-2, 2008.
- 김정열, 「고고문화와 민족-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2018.
-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 藤田勝久, 「『史記』蘇秦・張儀列傳の史料的考察-戰國中期の合縱と連横-」, 『愛媛大學教養部紀要』 25, 1992.
- 박경철,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 『先史와 古代』 29, 2008.
- 박대재, 「古朝鮮의 ‘王’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2005.
-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서울: 景仁文化史, 2013.
-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1988.
-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제29집, 1999.
- 서영수, 「『史記』古朝鮮 史料의 構成 분석과 新 解釋(1)」, 『단군학연구』 18, 2008.
- 徐波・姚桂榮, 「《戰國策》之名及其成書辨」, 『吉林師範學院學報』 1996[4], 1996.
- 宋鎬晟,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宋鎬晟,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2015.
- 吳江原, 「『管子』 「輕重」篇과 「輕重」篇의 古朝鮮 記事」, 『한국고대사』 20, 2015.
- 吳江原, 「『山海經』 「海內經」 ‘朝鮮天毒’ 기사의 맥락과 의미」, 『한국사연구』 169, 2015.
- 熊鐵基, 「漢代學術的歷史地位」,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2-5, 2003.
-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 이성규, 「중국사학계에서 본 고조선」, 『한국사시민강좌』 49, 서울: 일조각, 2011.

- 이청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송호정, 푸른역사, 2003)에 대한 비평」, 『역사와 현실』 48, 2003.
- 이청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청규, 「고조선과 요하문명」,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2011.
-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의미」, 『인문학연구』 28, 2015.
- 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의 성장 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제38집, 2017.
-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articles of Go-Joseon in  
Chines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Kim, Jung Ryol

Since there are very little of local literature materials about ancient history of Korea befor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Chinese literature materials were almost used in study of Korean ancient history. However, in the case of restoration of ancient history of Korea using these Chinese literature materials, we should grasp the circumstance of existence of these materials since in most cases these Chines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were transmitted into the present going through the complicated transmission and editing process. This will be especially true with Go-Joseon. Because of lack of materials to narrate history of Go-Joseon, we cannot help handling any articles valuably in Chines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Chines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which can be used were transmitted into the present going through complicated procedure. Aside from the definitive opinion about the reliability of their contents, we need to be careful to reconstruct the contents chronologically in the certain space and

time, because these materials were confused in a horizontal alignment. The Chinese literature materials about Go-Joseon mostly were organized and edited into their present form from the period of Han Dynasty. Since the people of Han Dynasty's life environment, a view of nature, geography and world contained in these materials, there is high probability that the affairs in Han Dynasty were described as the fact. So, if we accept the time and space reported in materials literally and construct the history of Go-Joseon on that basis, it may cause errors in its reliability. Meanwhile, to fill up the blank of materials and confirm their reliability, to utilize the archeological information is both inevitable and advisable. But, it is embarrassed that it suppress the irrationality inherent in literature materials or give them too much relia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ancient literature materials in China about history of Go-Joseon and assess objectively their values.

Key Words: Go-Joseon, literature material, Source Criticism, *Guanzi*,  
*Zhanguo*, *Weilue*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접수되어 11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